

# 이제훈, 능청스러운 도굴꾼 변신...“매력 총집합해 발산”

배우 이제훈이 영화 '도굴'에서 능청스러운 천재 도굴꾼으로 변신한다.

그는 "이제훈의 매력을 총집합해 발산하는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이제훈은 6일 온라인으로 열린 '도굴' 제작 보고회에서 "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모습들을 이번 작품을 통해 다 쏟아낸 것 같다"며 "능글맞고 능청스러운 캐릭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굴'은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가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땅 속에 숨어 있는 유물을 파헤치며 짜릿한 판 벌이는 범죄오락 영화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이제훈, 조우진, 신혜선, 임원희와 박정배 감독이 참석했다.

이제훈은 '도굴'을 선택한 이유로 단연 시나리오를 꼽았다.

그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다. '도굴'이라는 소재로 어떻게 신선한 범죄오락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읽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캐릭터들이 살아있고, 영화로 실제 양상들이 이뤄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영화 '도굴' 온라인 제작보고회...내달 개봉 예정**  
**망속 파헤치며 짜릿한 판 벌이는 범죄오락 영화**  
**남다른 촉·직감 가진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열연**  
**"능글맞고 능청스러운 캐릭터 한 건 이번이 처음"**

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 보여줬던 작품들과는 다른 장르의 범죄오락물이다.

이제훈은 극 중 남다른 촉과 직감을 가진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로 열연했다.

이제훈은 "제 필모그래피를 보면 그동안 진중하고 의미있는 작품들을 하다보니 발랄한 역할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천연덕스럽게 놀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고 다른 배우들과 정말 신나게 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장에 가는 순간이 정말 신났

다"며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그 기분을 빨리 관객들에게 나눠드리고 싶다. '이제훈이 이런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나' 하는 점도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조우진은 극 중 고분 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로 출연한다. 이른바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벗었다. 그동안 (역할상) 관객들을 웃게 할 적이 잘 없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 지금 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존스 박사



통해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이제훈 배우와 마음껏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지금

것 보셨던 캐릭터보다 비교적 아주 새털같이 훑날리는 가벼운 인물일 것"이라고 웃었다.

조우진 역시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된 건 시나리오의 힘이 컸다고 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평균 3~4시간 읽는데 1시간반만에, 한달음에 다 읽었다"며 "제작자 분과도 인연이 있고, 배우들을 보고 뽀짝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혜선은 고미숙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실장' 역으로, 임원희는 '인간 굴삭기' 같은 전설의 삼절 달인 '삼다리' 역을 맡았다.

신혜선은 "유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명석한 고미숙계 큐레이터다. 무언가 매기는 데 아주 뛰어난 친구이고, 지적이고 세련됐기 때문에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원희는 "도굴" 제목을 보고 무조건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나리오도 44분만에 읽었다"면서 "실제로 삼절을 잘한다. 파는 걸 다 좋아한다. 세시하고 맛있는 음용한 캐릭터를 그리고자 노력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도굴'은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뉴스

## MBN 새예능 '미쓰백' 가수 8명은 누구?...내일밤 11시 공개

첫 만남 현장 공개될 예정

8일 오후 11시 첫 방송되는 MBN 새 예능 '미쓰백(Miss Back)'에 8인의 가수가 모두 모인다.

6일 '미쓰백' 제작진은 "백지영, 송은이, 윤일상 3인의 멘토진과 8인의 가수가 모두 모인 첫 만남 현장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영(스텔라), 나다(외썩), 레이나(에프터스쿨), 세라(나인뮤지스), 소연(티아라), 소울(크레용팝), 수빈(달샤벳), 유진(다이나크)이 주인공이다.

제작진은 이 멤버들을 찾기 위해 3개월간 많은 걸그룹 출신 가수를 만난 결과, 인생곡이 절실한 최종 멤버 8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첫 회에서 백지영은 후배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를, '인생 매니저' 송은이, '인생곡 마스터' 윤일상이 함께 '미쓰백'을 통해 이루고 싶은 취지와 다짐을 밝혔다.

이들의 첫 만남에서 어색한 순간도 잠시 치열한 자리 선정부터 나이 서열까지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벌어지다가 하연, 멤버들이 한 명씩 공개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부터 왕따, 후원 제의 등 걸그룹 출신 가수들의 충격 고백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미쓰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금씩



잊혀 간 여자 아이돌 출신 가수 8명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

는 물론 인생곡으로 '제2의 전성기'가 될 전환점을 함께하는 신개념 다큐멘터리(휴먼다큐+쇼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 "초인종 누르고 고성"...비 측, 법적 조치 경고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



가수 비(정지훈) 측이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약성 팬에게 경고했다.

소속사 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소속사는 "팬을 가장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당사는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며, 이 글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마지막 경고임을 알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메시지와 함께 비의 자택 CCTV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비 자택 인근을 서성거리는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 박원, 2년 만에 컴백...‘마이 펍킹 로맨스’ 22일 발표

3년 만에 공개하는 박원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

가수 박원이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6일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원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규 3집 앨범 '마이 펍킹

로맨스(My fuxxxxx romance)'의 첫 번째 파트를 공개한다.

'마이 펍킹 로맨스'에는 '노력',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 '이후 3년 만에 공개하는 박원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담겼

다.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원은 2010년 그룹 '원모어찬스'를 결성,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15년 정규 1집 '라이크 어 원더(Like A Wonder)'와 2016년 정규 2집 '1/24'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 강하늘, 온달 아버지 된다...‘달이 뜨는 강’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

배우 강하늘이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의 아버지로 출연한다.

'달이 뜨는 강' 측은 6일 강하늘이 온달의 아버지 '온함'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 유명 설화 평강과 온달의 이야기를 재탄생시킨 사극으로, 태왕을 꿈꾸며 온달의 마음을 이용한 평강과 바보스럽게 희생만 했던 온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여자 주인공 '평강' 역에는 배우 김소현이 캐스팅됐다.

극 중 강하늘이 맡은 온함은 남주인공인 온달의 아버지이자 고구려의 순노부 족장으로 나라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다.

강하늘은 "대본과 캐릭터의 매력 때문에 '달이 뜨는 강'을 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강하늘은 현재 두 편의 영화 출연을 결정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달이 뜨는 강'은 '사임당 빛의 일기', '이몽', '바람과 구름과 비' 등을 연출한 윤상호 PD가 메가폰을 잡고 '카이스트', '개와 늑대의 시간', '99억의 여자' 등을 집필한 한지훈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 '트로트 가수' 권도운 "커밍아웃 한다"

홍석천 이후 20년만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트로트 가수 권도운이 성소수자임을 밝혔다.

6일 권도운은 소속사 믿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트로트 가수 최초로 게이(남성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한다"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고 연에게 커밍아웃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남성 연예인 커밍아웃은 2000년 배우 홍석천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다.

권도운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전부터 기사가 쏟아져서 놀랐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게재하며 '게이', '트로트 가수' 등을 해시태그했다.

권도운은 2009년 제2회 TBS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작사, 작곡,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가요계 데뷔했다.

최근에는 개그맨그룹 나몰라 패밀리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나몰라 패밀리 핫쇼' 고정 게스트로 활약했다.

뉴스